

성악 초등부 김영지 초당대 교수

호흡·발성 좋아... 표정·표현력 아쉬움

노래는 가장 진실하고 정성이 가득한 마음의 표현이다. 잘 부르는 노래는 감동의 전율을 선사한다. 때문에 비록 어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자기가 부를 노래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지 마음으로 그려내고 상상하며 느껴야 한다. 이 또한 올해 초등부 경연을 심사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이다. 경연은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곡을 택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호흡과 발성이 안정적이어서 가사 전달력이나 좋은 울림을 들려준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3, 4학년에서 치열한 경연을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무대에서의 당당한 모습과 집중해서 부르는 자세는 어린 학생들이라고 보기에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정과 표현력이 필요하다. 노래는 너무 큰 소리를 내려고 과장하거나 힘주어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확한 음정으로 전체적인 곡의 느낌에 맞춰 그림을 그리듯 정성껏 부른다면 훨씬 더 좋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피아노 초등부 서윤진 광주교대 교수

음악적 재능·가능성 가진 참가자 다수

이번 호남예술제는 긴 역사와 전통만큼 학생들의 열의, 그리고 관객들의 연주자에 대한 매너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많은 학생이 참가한 만큼 그 수준에도 편차가 심했지만 음악적 재능과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다수 눈에 띄어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 가끔 어린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곡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주법으로 적절한 소리를 테크니컬하게 잘 만들어내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반면 아직 음악적인 이해 없이 곡의 흐름에 맞지 않는 여러 표현들을 한다든지, 너무 많은 페달 사용이나 페달 밟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 오히려 곡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잘못된 손목이나 손가락 사용으로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참가자들도 다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테크닉을 바탕으로 음악적인 이해와 좋은 음색을 항상 생각하면서 피아노에 임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연주자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발레 박경숙 광주여대 교수

발레 교육은 기초 다지는 기다림의 미학

60주년을 맞은 호남예술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공로에 큰 박수를 보낸다. 본 심사위원도 초등학교 시절 참가했던 호남예술제 경연장에서 화려한 의상과 진한 분장을 한 학생들, 상기된 목소리로 지도하시는 선생님, 흥분과 활기로 타오르던 극장의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모든 예술교육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기초와 노력이다. 발레 역시 턴 아웃(Turn Out), 포인트(Point), 풀 업(Pull Up) 등 3가지 기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면 나쁜 습관은 점점 고치기 힘들어 지기 때문에 최소 3년간은 욕심부리지 말고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이후 비로소 발전과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된다. 이번 호남예술제 발레 부문 참가자는 대부분 초등학생들로 무엇보다 기초가 중요한 연령대다. 빨리빨리 문화가 발레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용교사와 학부모, 무용학도들의 참을성 있는, 즉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실용음악 한보리 다도해문예교육원 이사장

재즈 피아노·통기타 높은 수준의 기량

가장 부문은 비교적 고른 실력의 학생들로 심사에 어려움이 없었다. 드럼을 포함한 관악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많았고 기량이 뛰어난 학생도 보이지 않았다. 일찍 시작하는 예술 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학생의 먼 장래를 생각해보면 악기에 맞는 적절한 나이에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많은 수의 응시자가 있었던 부문은 클래식 기타였다. 어린 나이에 소화해내기 어려운 곡들을 선곡해서 플레이지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연주자가 많았다. 좀 더 쉬운 곡을 선택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심사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부문은 재즈 피아노 부문과 통기타 부문이었다. 참가자 모두 아주 높은 단계의 기량을 보여줬고 완성도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오늘의 연주가 비록 미숙할지라도, 모든 열매들이 여름날의 뜨거운 햇살을 견뎌내야 하듯이 부디 꾸준히 매진해 예술의 달고 쓰고 신비한 그맛을 모두 맛보기를 기대한다.

성악 중·고등부 임해철 호신대 교수

훌륭한 음색 소유한 친구 많아 미래 기대

올해 중등부 참가자들 대부분 이태리 가곡을 선택, 무난한 연주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도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반면 고등부는 예년에 비해 점차 그 참가자 수가 줄고 있어 안타까웠다.



이번 참여한 40여명의 경연자들은 예년과 비등한 수준을 보여 줬다. 성악 예술은 본디 소리를 매개로 함에 따라 선천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참가자들 중 훌륭한 음을 소유한 친구들이 많아 미래가 기대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소리로 음정, 박자, 발음이 정확하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소리로 끝나게 된다. 예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대에 등장해서 인사하고 퇴장할 때까지 모든 소리와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 많은 경연자들이 리듬을 타며 부르지 못하는 경우, 몸을 뒤돌며 부르는 경우, 발음이 틀리는 경우 등 아직 덜 다듬어진 부족한 모습들도 보였다. 자신의 연주 모습을 녹화해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피아노 중·고등부 조성경 남부대 교수

리듬·박자·템포, 기본에 충실한 연주를

중고등부 피아노 부문은 지정곡이 다소 어려운 탓인지 약간 곡을 소화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음악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학생들도 또한 있었다.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 이들 모두를 바라보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리듬, 박자, 템포다. 특히 부분씩 리듬이 흔들리는 이유를 분석해 보고, 멜로디 라인과 터치, 릴렉스, 리듬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연주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에 관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본다.

학생들은 전문연주자가 아니기에 기본에 충실한 연주 즉, 악보에 충실한 연주, 테크니컬이든 음악적으로든 가능한 완벽하게 또 다양하게 연주하는 게 보다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호남예술제에 큰 박수를 보내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국악 김동현 광주교대 교수

참가자 줄어 아쉬웠지만 기량은 우수

귀여운 초등학생부터 믿음직스러운 고등학생들까지 그동안 같고 뒤은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항상 흐뭇하고 고맙다. 경연에 출전한 참가자의 대부분은 음악 실력과 표현력에 있어 매우 안정감 있는 완성도를 보여줬다. 학교 급별 참가 비율은 초등부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등부와 고등부는 매우 저조했다. 초등학교 관련학급주 부문에 한 단체만 출전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국악관련학에 애정을 기울이는 학교가 드물다는 반증이 때문이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참가자는 적었지만 기량은 전체적으로 우수했다. 국악부문의 전반적인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악에 있어 관악의 참가자가 저조하고 가야금과 가야금병창의 일변도임과 성악참가자의 부재 그리고 전체 참가자수의 감소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교와 지도 교사 등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이 있기에 더 나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술 최재영 서양화가

좋은 작품 의외로 많아 선정에 어려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호남지역의 초·중등학생들의 미술대회인 호남예술제 출품작을 심사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바탕으로 창의성, 호기심 그리고 상상력을 평가기준을 삼았다.



출품작 수는 예년과 비슷하나 중등부 출품작 수가 줄어서 다소 아쉬웠지만 뜻밖의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 작품의 내용면에서는 학교별 화풍의 편차가 심해 우수작을 선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세련되고 비슷한 그림들보다는 독창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을 선정했다. '숲속 친구들'을 주제로 그린 김은서, 정요준 학생의 작품은 초등학생의 순수한 마음이 읽히는 그림이었다. 김민지 학생의 '내가 꿈꾸는 세상'은 행복이 가득 담긴 작품이었다.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호남예술제가 미래 광주, 호남을 이끌 나갈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하는 용광로가 되리라 생각되며 많은 사람에게 오래 기억될 것으로 믿는다.

관악 이창녕 원광대 교수

작품 완성도·예술적 표현 등 매우 향상

고등부에서는 음악적인 해석 등 전체 수준이 예년에 비해 한층 더 진일보한 면을 볼 수 있었다. 작품의 완성도는 물론 예술적 표현이 매우 향상돼 중상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질적인 면에서는 작품에 접근하는 태도, 방법 면에서는 자기중심이 뚜렷한 자세가 돋보여 젊은 음악인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플루트와 클라리넷 부문에서는 재능과 감각이 뛰어난 몇몇 연주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목관 부문에서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작품의 선택, 곡의 분위기와 특성 및 작곡가의 경향 등 곡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작품의 표현과 해석에서 필요 이상의 기교를 과시한 것도 옥에 티다.

초등부 또한 작품의 해석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예능 영재들의 재능이 돋보였고, 조금 부족한 학생들에게서도 예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음정과 선율의 흐름 그리고 기교면에서 많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무용 박선옥 광주여대 교수

고등부 독무 기교·주제·연결 빼어나

한국무용은 지난해에 비해 희망적이다. 참가자는 적지만 초등부 참여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호남예술제 한국무용 부문의 성장을 예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초등부를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등 2개 학년씩 분류해 대회를 치른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각 학년의 수준 차이와 연령별 발전 정도를 잘 고려했다고 본다.

전통무용의 경우 오랜 시간 연마한 학생들의 정보가 이미 지역 내에서 공유된 탓인지 참가자는 적었지만 실력은 뛰어났다. 특히 고등부 독무의 경우 매우 높은 기교와 주제, 움직임의 연결이 조화를 이루었다. 단지 기교적인 측면을 앞세워 외국무용의 동작을 차용하면서 한국무용의 호흡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 창작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 주길 바란다.

초등부의 경우에도 학생에게 무리한 테크닉이 오히려 감정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면 한다. 핵심이 되는 한두 가지의 테크닉을 중심으로 작품 전체를 안내해 기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에도 테크닉의 연결을 과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다.

합창·중창 김철웅 목포대 교수

발성부터 단원 배치까지 최선 다한 경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음악 중에서도 합창만큼 감동을 주는 것도 흔치 않다.



대회가 거듭할수록 합창과 중창 부문 참가팀이 감소하는 현상이 아쉬움을 갖게 했다. 하지만 참가를 준비하는 팀들은 최선을 다한 경연이었다. 워선 항상 선곡이 매우 중요하다. 단원들의 음악수준에 맞는 좋은 곡을 연주할 때 최고의 감동 있는 합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발음지도와 공명이 잘되는 발성지도 역시 필요하다.

또한 중창과 합창은 많은 인원이 입퇴장하는 관계로 단원들의 무대 입장부터 마지막 퇴장까지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 무대는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고 서로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단원들을 배치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합창단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은 배려심이다. 서로 화음이 잘 이루어지려면 다른 파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상대방 소리를 잘 듣고 배려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만화일러스트 고경일 상명대 교수

상상초월 아이디어와 그림 실력 뛰어나

만화일러스트 부문은 상식 밖인 작품들이 많아서 너무 놀랐다. 첫째, 누가 그린건지 알 수가 없었다. 중학생이 그랬는지 고등학생이 그랬는지 대학생이 그랬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와 그림실력이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다.



둘째, 반짝이는 소재를 만화로 구성해 내는 기획력에 놀랐다. 셋째, 경쟁사회의 모순, 입시위주의 교육, 세월호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사회 비판의 작품이 많았다. 이번 공모전에 응모한 학생들은 풍자만화에 대한 '감'을 찾고, 그려내는 실력이 뛰어났다. 비록 '내용이 깊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런 고민들을 몇 시간 만에 작품으로 만든 학생들에게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특히 이번 호남 예술제 만화부문 수상작으로 뽑힌 학생들의 작품에는 열정과 분노가 있고, 이 사회에 띄우는 강력한 메시지와 울림이 있다.

현악 임봉순 삼육대 교수

바이올린 저학년 전국대회로 손색 없어

전주가 시작되고 가벼운 흥분과 함께 순간 긴장이 됐다. 어려운 저 곡을 어린 학생이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겠기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이었지만 연주가 시작되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깔끔한 음질들과 정확한 활의 사용, 음악적 흐름이 그야말로 압도적인 연주였기에 경연대회가 아닌 음악회장에 앉아 있는 착각을 느꼈다.

제60회 호남예술제 현악 부문은 참가인원이나 수준 면에서 풍작이었다. 특히 바이올린 저학년 부문의 실력은 가히 전국대회의 면모를 손색없이 빛내 주었다. 강한 톤과 유려한 멜로디가 기대와 발전을 엿보기에 충분했다.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연주하는 곡들의 심세한 부분들까지 잘 표현하기 위해 어렵고 기교적인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연습한다면 더 좋은 연주를 들려줄 것이라 생각한다. 바이올린 부문에 비해 다른 현악부문들은 예년에 비해 큰 성장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도 있다.

현대무용·실용무용 여순심 광주여대 교수

군무 박진감 넘치는 호흡·교감 완벽

모든 춤에서 창작 경연대회는 치열하다. 하지만 특히 올해 현대무용과 실용무용이 함께한 경연장은 뜨거웠다. 연습을 거듭한 긴 시간 만큼이나 학생들의 실력은 출중했고 감정처리도 아주 좋았다. 현대무용부문이나 실용무용 부문에서 개개인의 실력이 뛰어났지만 군무에서 완벽한 테크닉과 군무진들의 박진감 넘치는 호흡, 감정 교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한편의 공연작품을 보는 듯했다. 학생들의 뜨겁고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도 여러 장르에 참가해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기량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특히 고학년들의 감정표현이나 테크닉이 프로무용수에 가까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반면 실용무용부문에서 개개인의 실력은 우수했지만 부분별 경쟁자가 적고, 밸리댄스 참가자가 저조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큰 행사가 60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많은 무용인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합주·중주 김농학 목포대 교수

전문 연주단체 못지않는 기량들 선택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호남예술제를 통하여 그들의 꿈을 키우고 자신들의 기량을 평가받으면서 전문 음악인으로 혹은 동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회가였다.



올해도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합주 부문에 참가를 했는데 고무적인 것은 중주 부문에도 다양한 장르의 팀들이 참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관악중주와 현악중주 그리고 타악이 앙상블까지 많은 팀들이 참가했고 연주내용 면에서도 전문 연주단체 못지않는 기량들을 선보였다는 것이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면서도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대견스러운 일이고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반면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오케스트라 활동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는 중주 활동에도 더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문 고재중 시인

'우리 가족...' 진흙속의 진주 같은 작품

심사위원 네 사람이 모두 학창시절에 호남예술제에서 입상했기에 이번 심사에 임한 마음은 각별했다. 막상 원고지를 넘기며 심사위원들은 한숨과 탄식을 금치 못했다. 학생 대부분이 다섯 줄 이상의 표현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것이 그리 요원한 꿈만이 아니라 그것을 최고상을 탄 세 학생이 충분히 입증해줬다.



'우리 가족 새끼손가락'은 동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거의 가지고 있다. 리듬, 재미, 가족 구성원 개개의 특성에 맞는 새끼손가락의 정확한 대비 등은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우상'은 할머니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 진정성을 보인 작품이다. 이런 민중 지향적 시들이 흔히 범하는 감정남발과 상투적 위로로 깨끗이 넘어지며 싱그러운 표현들로 넘쳐나는 시이다. 산문 '엄마의 노래'는 목이 메게 하는 작품이다. 휴대폰 녹음파일에서 들게 되는 돌이긴 엄마의 노래를 되찾으며 다시 희망의 웃음을 활짝 웃는 딸의 모습이 너무 대견하다.